

# ‘일상성연구’의 가정학적 함의

## Everyday Life Study's Implication for Home Economics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선미

Family Welfare Dept.,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Seonmi Kim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일상성연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IV. 일상성연구의 가정학적 함의 : 시각의 전환과 질적 방법의 적용 |
| II. 일상적 생활세계, 일상성이란 무엇인가?   | V. 참고문헌                                |
| III. 우리 학문 분야의 일상성연구        |  |

### <Abstract>

This study emphasizes the everyday life study based on the proper study method. From the sociological literatures, everyday life's concept, it's various characteristics, two different perspectives and life-history approach are introduced. One Home Economics Paradigm Study published in 1996 is summarized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paradigm shift from quantitative method based on positivism to qualitative study for human everyday life study. I examined our everyday life studies as a reader and a member of screening committee and introduced four articles using different qualitative study methods.

**주제어(Key Words):** 일상생활(everyday life), 생활사연구(life-history approach), 질적방법(qualitative study)

#### 1. 문제제기 : 일상성연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이 글은 가정학에서 일상성연구가 지니는 함의를 고찰해본 것이다. 문제제기를 통해 일상성연구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일상적 생활세계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접근양상과 관점, 접근방법으로서의 생활사연구 등을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해 본다. 그 후 우리 학문분야에서 일상성연구에 대한 이전의 주장과 그 근거를 살펴보고, 최근의 연구사례를 소개한다. 끝으로 일상성연구의 가정학적 함의가 무엇인지 간

추려본다.

원래 우리 학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일상적 가정생활이며 접근방법은 '총체적 접근' '학제적 접근' 함의되어 왔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학은 복잡한 일상적 가정생활이 그 대상이며 그 복잡성 때문에 고유한 방법론이 있지 않고(있을 수 없고), 인접 학문의 다양한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학이 오랫동안 분과학문으로 나뉘어 전문화되어온 이래로 일상적 가정생활과 관련된 전체 영역의 통합적 연구는 실종되었고 마침내 가정학내에서마저 학제적 접근이 깨어진 상태이다. 지금은 일상생활을 연구하되 통합적으

Corresponding author: Seonmi Kim, Family Welfare Dept. Gwangju University, 592-1 Jinwol-dong, Nam-gu, Gwanju, 506-703, Korea  
E-mail: yupy1005@hanmail.net

\* 본 논문은 2006년 4월 29일 대한가정학회가 주최한 제 59차 춘계학술대회 「일상생활·일상성·생활과학」의 주제발표 논문임

로 연구할 필요성이 큰 시기라고 하겠다.

사회학과 인류학을 비롯한 인접학문들이 일상생활 연구에 관심을 돌리고 연구물들을 내면서 가정학은 고유한 연구대상을 통해 독자성을 가지는데 있어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사람과 물리적 요소를 포괄하는 가정생활 전체를 연구해온 우리 학문의 축적된 연구경험과 업적을 토대로 보다 훌륭한 연구 성과물을 내서 다른 학문과 소통을 원활히 할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분야는 특히 일상적 가정생활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가 다른 학문에서는 다만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동안 혹시 가졌을 수도 있는 거대담론 거시이론의 결여라는 학문적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탄생(2005년)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가족정책의 수요가 급증한 시점에서 생활과학에서의 일상성연구는 비로서 현실에 연구결과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장을 얻은 셈이다. 정책이란 현실을 수정해야 하는 장치로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며, 그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맥락을 고려할 때에만 현실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컨대 일상생활의 연구야말로 인간의 삶을 보다 좋게 바꾸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필요한 것이다.

## II. 일상적 생활세계, 일상성이란 무엇인가?

이제 관련된 문헌들<sup>1)</sup>을 통해 앞서 말한 일상성연구의 중요성에 걸맞은 학문적 개념도구를 들여다보기 위해 일상적 생활세계의 개념과 특징, 접근양상, 관점, 접근 방법으로서 생활사 연구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학의 경우에 일상성연구로 관심을 돌리게 된 이유와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본다. 향후 우리 학문에서도 일상생활을 어떻게 연구해왔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 1. 일상성연구로의 관심희귀; 사회학의 예

사회학은 구조기능주의 갈등이론 및 이들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대이론화 프로젝트의 개념적 허구와 현실괴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현상학적 행위이론으로 전향하였다. 그 일환으로 에드문트 후설은 ‘생활세계’의 개념을 만들고 알프레드 슈츠가 그 개념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현상학적 행위이론의 대표인 버거와 루크만은 사회학의 전공용어로 ‘생활세계’의 개념을 정착시켰다(김종길, 2002: 67). 이전까지 일상적 생활세계는 과학을 표방해온 사회학의 입장에서 비전문 용어에 불과했다.

생활세계에의 관심전환 혹은 일상생활의 연구주제화는 언제나 방법론에 대한 반성과 관련이 깊다. 그 중 아리스에 겐(1998)도 현대 사회학의 방법론을 반성하였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그는 사회학이 첫째, 역사적 시각 결여하고 있고 둘째, 구체적 개인의 생활사 연구가 부재하며 셋째, 구체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전체성을 다루는 문제에서 [생명 = 생활의 전체성]을 상실하였다고 본다. 구체적 생활의 장면 연구는 축적되어 오고 있으나 경제학적 방법 혹은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에 기초하여 생활의 단면도만을 그려왔다고나 할까? 그러한 반성위에서 그는 역사적 관점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생명 = 생활연구라는 관점에서 생활사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사회학자들 가운데에서 일상성연구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공제욱(2006:5)에 따르면, 첫째, 거시적인 것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미시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일상에 주목하기도 하고 둘째, 거시적인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미시적인 일상에 주목하기도 하며 셋째, 거시와 미시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 전체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시적인 일상생활에 주목하기도 한다. 또한 넷째, 일상생활을 영위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그 자체의 변화 혹은 지속을 재구성하는 연구가 있을 수 있으며 끝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 외적 요인들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

우리나라 사회학계에서의 대표적 일상성연구서를 잠시 소개해보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상세계라는 공통연구대상을 놓고 학문의 전통에 따라 상이한 연구주제들을 선택하게 되며 우리 가정학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에 대해 시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삼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중첩적인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가정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는 능력은 우리 학문분야의 특징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들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이며 협동적인 관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박재환의 일상성연구회가 1994년에,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전망과 일상생활의 의미와 연구방법 그리고 일상생활과 현실의 세 범주로 된 23편의 글- 그 중 22편이 외국의 일상생활 연구자들의 글-을 묶어낸 단행본이 있다. 또한 최근 들

1) II장은 주로 사회학분야의 「일상성·일상생활 연구회」가 1994년 편집한 일상생활의 사회학(한울 아카데미)을 자료로 삼았다. 그 밖에 김종길의 2002년 논문 “거대이론의 이기와 일상성의 재발견: 현상학적 행위이론의 비판적 재검토” 공제욱, 정근식 편(2006),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을 참고하였다. 연구자의 역량의 한계로 사회학 분야만 보았으나 일상세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환기는 보편적이다. 이를테면 한국역사연구회편 우리는 지난 100년간 어떻게 살았을까(1998) 연세대의 국학연구원 편집서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2004)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 동일한 연구회가 「현대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의 제하<sup>2)</sup>에 16편의 일상성과 관련된 논문을 묶어 내었다. 또한 2006년에는 식민지시기를 설명하는 구조나 제도중심의 접근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의 동의와 저항을 역동적으로 설명해보고자, 공제육과 장근식이 편집한 식민지의 일상이라는 책이 나왔다. 여기에서는 신체의 식민화와 생활세계로 시간체계 의복통제 맛 체육교육 등이 연구되었고, 식민주의와 공간정치로 대경성계획을 둘러싼 식민권력의 균열과 갈등 물(水) 생활의 변화 재래시장의 부상과 식민지 지역경제의 사회문화적 동화 및 전쟁사자 추모공간과 추모의례가 연구되었다. 또한 근대성의 소비와 언어에서 영어교육 서양영화의 관람과 소비의 정치, 신여성의 가시성과 주변성 일본어 글쓰기 등이 연구되었다.

2. 일상적 생활세계의 개념과 접근 방식 그리고 관점

일상적 생활세계는 “인간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변화시키는 그리고 신체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실재영역, 혹은 이성 역량을 갖춘 정상적으로 각성된 성인이 단순히 주어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실재영역”이다(Shutz와 Luckmann, 1975:23, 김종길, 2002:70에서 재인용).

또한 일상적 생활세계는 우리가 이웃사람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실재이자 어떤 다른 영역보다도 우위에 있는 특별한 실재. 자연세계와 사회세계를 통괄하는 일상의 생활세계는 나와 우리의 상호적 행위가 일어나는 경험 현장이며 상호적 행위가 지향하는 목표영역(김종길, 2002:70)이다. 개인수준에서 볼 때 우리 일상생활은 일반적으로 해당사회의 재생산이기도 하다(아그네스 헬러, 1998:112).

일상성에 주목한 학자들 가운데 르페브르는 일상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1968저 2005년 역). 먼저 일상성은 곧 현대성이다. 즉 일상성은 상품의 세계, 심지어 인간도 상품인 세계, 그 세계에서 광고는 지상명령인 그러한 세계를 의미한다. 광고는 일상생활의 각본을 제공하며 일상성의 장소는 도시이다. 또한 일상성은 이중성을 지닌다. 변화되어야 하지만 바꾸기 힘든 것이며, 반복되고 진부하며 사소하면서도 심오한 그러한 이중성이다. 또한 일상성은 보수성과 저항성을 특징으로 한다. 발전과 사건은 직선적 시간구조

2) 사회학에서 일상생활의 연구주제로 어떤 것을 주목하나 보기 위해 이 책의 내용을 연구제목 중심삼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생활원리, 새로운 인간유형 호모 디지털로 로쿠엔스-디지털 언어매체를 사용한다는 의미의 최신 한국의 인간형-, 출산파업, 일 등품 유아 만들기, 혼자 노는 아이들, 1318 욕망의 질주의 10대, 대학의 정체성, 좌초하는 모노가미, 불안과 혼돈의 잡노마드, 키덜트 사주카페 로모, 몸살 앓는 몸, 관광이 넘쳐나는 사회, 돈의 매트릭스, 사살 바이러스, 빠른 정년 연장되는 노년, 죽음을 삼킨다. 대체로 사회총체적인 수준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를 가지는데 반해 일상성은 주기적 시간구조에 기인한다. 일상성이란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자리로 오며 진부한 것이 되는 생존과 존속의 메커니즘”이다. 아그네스 헬러(1998: 115)는 일상적 활동의 특징은 삶의 주어진 기간 동안 무조건적 연속성을 의미하며, 삶의 지속적인 기초로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일상의 세계에 학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Claude Javeau의 분류에 기초하여 박재환은 다섯 가지 양상으로 접근방식을 재구성하였다(박재환, 1998:29-30). 첫째, 인식론적 고찰; 일상의 전체적 의미 논의, 접근의 원칙 검토 둘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국민생활시간조사가 여기에 해당함) 셋째, 일상생활의 각종 의식(儀式)에 관한 연구. 넷째, 사회전체의 일상적 구조까지 확대. 사회전체의 평상상태의 분석. 다섯째, 일상의 두드러진 특정한 성격을 인간 존재의 내면적 반성과 결부해 논의. 고뇌 불안 소외(문학작품의 분석이 병행됨).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갈래의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마페졸리는 이데올로기적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상의 중요성만을 부각하고 있다. 두 가지 관점 혹은 시각이 상반된다고 하는 세부적인 특징은 어떠한가?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두 관점 모두 일상생활 연구가 사회학의 구체적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현상학적 연구와 민속방법론의 대두, 상호작용의 의식 분석 그리고 사회전체의 구조 속에서 조망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르페브르는 개인의 일상이 사회 전체의 압축된 상징이며 사회와 개인의 변증법적 관계의 표현이 바로 일상이라고 보되, 마페졸리가 ‘실태의 무한성과 삶의 다양성에 외경’을 가지는 것은 옳지만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관점은 허무주의이며 어떤 형식의 입장과 관점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박재환의 평가이다(1998:39-42).

또한 일상생활의 현재와 미래 또는 현실과 꿈의 문제에 있어서, 르페브르와 마페졸리는 현재적 삶에 대해 강조하되, 르페브르는 일상의 부정적인 측면인 소외가 극복되는 미래를 강조하고 있다. 마페졸리는 대중의 ‘안일한 태도’와 ‘사적인 세계로의 침몰’을 꾸짖을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마페졸리가 주장하는바 대중의 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일상에서의 소외와 좌절은 감출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연구방법으로서의 생활사

아리시에 겐(1998:222-243)은 종래의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 역사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 다양한 생활사(life history)연구에로의 관심을 정리하였다. 한마디로 「생

<표 1> 일상생활에 대한 상반된 관점

구분	앙리 르페브르의 관점	마케줄리의 관점
세부적 특징	- 일상생활의 연구 = 소외의 연구 기술문명과 소비적 특성에 의해 소외 불만 - 소외의 이론과 총체적 인간이 일상성연구의 기준선이 됨 - 개인의 욕구 자체가 사회의 기술발전 단계와 전체 구조에 의해 제약됨 - 사회전체에 대한 비판이 우선적 - 인간존재의 전체성(욕구의 차원, 노동의 차원, 놀이와 즐거움의 차원, 이 셋의 유기적 통합이 인간의 참된 모습 현실화) - 현대사회의 일상생활 = 노동 가정생활과 여가(그러나 어디에서도 전인적인 조화가 보장되는 일상은 발견되지 않음) - 경제적 소외, 여가자체가 노동과 단절되고 여가 그 자체 속에서 일상을 뛰어넘으려는 인간성이 나타나게 되는 노동의 소외, 따라서 현대의 일상은 극복되어야 할 상태 - 극복의 방향은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 현재에의 관심, 대중에의 신뢰, 지적 상대주의 먼저, 현재에의 관심(기독교적 직선적 발전이라는 진보의 이데올로기와 상반됨) 영원한 회귀의 신화는 일상의 민중들의 사고의 원형 - 대중에의 신뢰(현재의 자족에 머무는 자세,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대중의 모든 것은 타당한 것(이론적 도식이나 이데올로기의 전제 없이 현실의 다 양성을 먼저 인정) - 지적 상대주의 : 모든 이론적 도식과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현실의 일부만을 포착할 뿐 다양성에 바탕을 둔 상대주의는 대중의 지혜이기도 하고 학문의 독선 과 교의의 횡포의 탈로 실증적이고 수량적인 방법을 넘어 직관과 상징적인 접근에 의해 일상의 구성성 표출

(박재환, 1998; 30-39의 내용을 표로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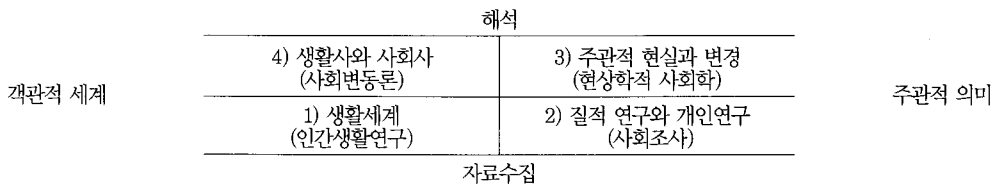
활사 연구의 시각 = 역사의 관점, 개인중심적 접근, 생명 = 생활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생활사 연구는 현재 재부흥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류의 두 축은 「연구방법의 축」과 「주제의 축」이며 결국 네 가지 범주로 정리된다(젠, 230) 자료의 수집과 해석을 하나의 방법론적 축으로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미 부여라는 다른 하나의 주제의 축으로 삼았다(그림 1).

해석 단계와 관련되며 이 때 현상학적 관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상학적 사회학의 생활사<sup>3)</sup>라고도 할 수 있다. 최고의 현실과 비일상적인 현실 사이의 이행(슈츠의 다원론적 현실론)과 일상생활내부에서의 주관적 현실의 이행과 그 자명성의 위기(버거)에 대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생활사의 사회사<sup>4)</sup>(사회변동론)는 개인의 생활사를 사회학적 틀이 아닌, 인간의 생애형태와 의미 있는 사건체험에

<그림 1> 생활사연구의 네 가지 시각



첫째, 생활사 사례의 유형화는 생활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생활사의 사실적 측면을 비교하고 연구자의 문제 관점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계열 자료의 수집 사용을 통해 노동자생활이나 빈곤연구에서 생활사로 나아간다. 가족생활 혹은 생활과정론 가족주기 라이프코스 그리고 소집단 연구와의 접촉을 들 수 있고, 직업과 지역에서의 이동경력, 지역사회 변화와 개인의 생활사를 중첩시켜 지역생활의 변모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생활사를 통해 사회문제와 사회운동에 결부된 자료를 다룬다.

둘째, 질적 조사법과 ‘개인’연구(사회조사론)는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며 기술할 때 그 생활 주체의 주관적인 의미부여를 문제로 삼는다. 구술사와 체험한 사건을 단편적으로 듣기, 생활기록을 검토하는 것 등이 관련된다.

셋째, 주관적 현실의 변경과정(현상학적 사회학)은 자료의

의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 즉, 인간의 생애에 의거한 경험의 역사 = 생활사(출산, 육아, 놀이...학교) / 사람과 사물과의 관련정도를 축으로 생활사를 찾음 / 사회사와의 접점이란 관점에서 생활사의 주제를 정리(예 전쟁

3) 생활사 해석에 즈음하여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현상학적 사회학의 세 개념; 주관적 현실(의미체계)의 유지와 변경; 시기 방법 계기 현재의 의미체계 / 그에 작용하는 중요한 타자 / 적응전략(2차적 사회화/수동적으로 사회현실 내재화할 뿐 아니라 객관적 현실 거부 저항 사회변동요인 제공하는 주체)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자기정체감(자기 동일성)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개인이 자율화해 하고 있음(아리스에 겐, 1998:238-239).

4) 사회사의 의의는 곧 아날학파의 방법의 특징과도 같은데 다음과 같다. ① 장기적 파동 수량적 파악 지향 ② 물질문화나 일상생활의 역사에 중점 두기(아이들의 세계, 결혼과 출산 육아...) ③ 문헌자료이외의 구술자료 전설 민화 등 자료를 중시하기 ④ 정치사 사회사와 다른 집단사 사건사 운동사 등을 통해 문화사 영역 확립 ⑤ 표면적 역사구분이 아니라 심층사(정신사 심리사 등 심의 현상) 지향(아리스에 겐, 1998: 241)

체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리스에 겐은 이러한 유형들을 가로질러 생활사 연구의 문제가 지향하는 것을 “새로운 인간상의 발굴 새로운 인간의 삶의 방식의 발굴이며, 현재의 자기 모습을 성찰하고, 타자의 삶의 방식 가운데에 자기의 삶의 방식을 투영하여 새로운 인간상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III. 우리 학문 분야에서 일상성연구

오늘 일상성연구에 대한 가정학의 관심은 인접학문의 도전에 의한 재고찰이지 학문적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벌써 1996년 이래 여러 차례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상성연구를 제대로 그리고 활발하게 해 오지 못 했는가가 우리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몇 차례의 발표문 가운데 논문으로 출간된 대표적인 글을 통해 우리 학문풍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번 간략하게 짚어보고 근래 연구에서 우리의 시도의 특징을 개괄하고 몇 가지 연구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1996년, 연구 패러다임 변화 촉구

우리 학문의 풍토를 반성하고 일상생활 접근을 시론 중 하나로 제시한 연구로 1996년 “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인간으로”(공인숙·노영주·성미애·송혜림·이승미·이완정·최연실)를 살펴보자. 이 글은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가족연구자 가족자원관리 연구자 그리고 아동연구자가 함께 쓴 글이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존 인식론에 대한 반성으로 과학성에의 정도 및 인간생태학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둘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생활 역사 의미 과정 등이 간과되어 왔으며 후기 실증주의적 다원론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체로 보고 있다. 셋째, 세 가지 시론을 제안하고 있는데 기존의 실증주의적 방법에 더하여 후기 실증주의적 방법의 보완을 강조하였고, 일상생활 접근을 통한 가정생활 연구를 제시하였으며 비판적 실천을 위한 가정철학의 모색을 학자의 의무로 보았다.

먼저, ‘회고와 전망 : 인간주의적 가정학을 소망하며’를 통해 연구대상과 연구자를 포함하여 인간이 학문 활동의 중심에 서기를 주장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 거대이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인간행위와 그것의 맥락인 사회 역사를 명백하게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부분적으로 방기한 점을 반성하고, 후기 실증주의를 인식론적 대안으로 삼고 있으며 세 가지 시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학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에서는 우리 학문이 일

상생활을 다루되 과학성에 정도<sup>5)</sup>되어 창의적이고 대담하며 진취적인 연구가 어려웠으며, 또한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운 연구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불가피하게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많은 경우일지라도 연구자의 가치판단이 허용되고 또 실증주의적 방법에 대한 민주적인 비판과 반비판을 허용하여 의미를 포착하는 연구를 답안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가정학의 패러다임으로 여겨져 온 인간생태학적 방법의 적용<sup>6)</sup>에 대한 문제점 혹은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연구 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세 가지 시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연과학적 방법과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가정생활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즉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효과의 크기나 강도분석을 통해 보강될 필요 혹은 반복연구나 일치비율 제시 등을 통해 .... 즉, 실증주의 방법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 둘째, 가정에 대한 일상생활의 접근, 즉, 구체적인 현실과 삶으로 관심 변화시키기. (실증주의에 기반한 전문 용어와 도식에서 벗어나야 함. 접근 가능한 중산층 일부를 대상으로 삼음. 중산층의 평균적인 삶을 일반화함. 과학적 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을 취사선택 하므로써 실증주의적 방법에 적합한 연구주체의 선택. 인간과 그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및 그 의미를 소홀히 하게 됨) 셋째, 가정철학의 가능성 모색. 가정생활은 총합적인 운영활동을 통해 유지되므로 가정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기준을 검증하고 제시해야 한다<sup>7)</sup>.

특히 이 가운데 일상생활에의 접근이라는 관점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저자들은 “단지 일상생활이라는 연구주체의 부각 이상”이라고 언급한다. 상세히 그 시사점을 살펴보면, 연구자 자신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므로 연구자의 위치가 지식권력자에서 생활인으로 복귀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규범의 제시자로서 지식의 생산자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민

5) ① 과학성에의 정도: 정확성과 조심성(학자의 가치판단이 배제된, 실수는 없지만 발견 또한 없는), 가설설정 연구 설계 측면에서 연구형태나 자료수집 방법에서의 편향성, 무선회의 문제(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는 기본단계인 무선회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제한점으로 지적 해석의 부당성을 내포함)

6) ② 인간생태학: 거대이론, 과연 필요한가? 체계적이고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인간생태학 이론은 갈등을 제거시키고 조화를 추구한 결과 사회변동과 역사를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함. 또한 가정학에 인간생태학을 적용할 때 가지는 한계점이 분명함 지적, cf. 포괄성이 아니라 총체적이란 역사의 한 시점으로서 현재 속에서 특정 사회구조가 삶의 경험인 안고 있는 복합성과 모호성 의미의 중층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고 이해하여 언어지는 것. 인간생태학의 문제는 애초 분석단위가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이며 또 경계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고려해야함도 지적하고 있음.

7) 이 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권위적인 학자의 계몽적 인도가 아니라 소위 생활당사자들이 일상의 맥락에서 실천하여 얻은 관습적 지식이 제시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중을 가르치고 인도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접근은 생활의 주체인 인간으로부터 삶의 대안을 제시받는 것이다.

미시적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 일상은 연구 조망되어야 한다. 바로 일상은 “사회구조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이 그 가족과 개인의 특성과 만나는 공집합(38)”. 그 때문에 거시적 조망을 통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서 간과해 온 주체로서의 ‘인간’, 그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가정생활’, 그 생활을 미시적 관점에서 객관화할 때 놓치게 되는 ‘역사성’과 ‘사회성’ 그리고 생활의 주체인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들’을 포착하려는 노력이 가정학의 한 줄기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 때 소외된 인간의 복원이 가능하다.

## 2.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학문의 함의는 일상적 가정생활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해 낸다는 목표와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예측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실천적 목표를 지닌다. 이는 사람(일상적 가정생활을 하는 개인과 가족), 과정 맥락 역사를 내포하고자 하는 관점과 그에 적절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한 일상생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실 적용 가능한 실천 대안도 효과적으로 규명하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연구문제를 풀기 위해 실증주의적 방법이 적합한 연구주제 - 이를테면 비용의 문제, 시간사용량의 증가와 감소 등 수량적 자료에 기반을 둔 연구 - 와 질적 방법이 적합한 연구주제를 따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일상생활을 보다 완성도 높게 그려내는 것이 우리 학문의 목표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학문의 풍토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장면과 밀접한 소재를 연구하되 여전히 생활의 전체성이 아닌 단면도를 그리는 성향이 강하여, 여가생활 소비생활 가사노동과 같이 생활연구가 세분화/전문화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통계적 처리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생활당사자(개인 혹은 가족)의 총체적 생활은 누락되어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가정생활과 연관을 맺는 방법에 대한 파악도 미흡하였다.

한편, 일상생활 연구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되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지 않은 연구도 다수 보였다. 그 예로 연구문제를 제보자에게 직접 묻는 경우가 많다(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때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접적으로 찾아야 하며 연구자의 몫이다). 그 결과 연구내용이 단답형 질문에 응답자의 응답만 인용되는 방식의 글이 많이 보이며 일상생활의 총체적 맥락이 사장되기 쉽다. 혹은 연구의 설계가 양적 연구에서와 유사하여 선행연구에서 이

론적 배경을 토대로 미리 변수를 찾으며(연구자의 지적 호기심보다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조심스레 수용하는), 변수간 관련성과 만족도를 보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결과의 해석에서도 변수간 양적 관련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과도기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연구방법을 교육하고 적용해야 할 새로운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3. 일상생활 연구 사례; 가족자원관리학과 소비자학분야에서

이제 가족자원관리학과 소비자학분야<sup>8)</sup>에서 몇 가지 일상생활 연구사례를 소개해 보자.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연구물을 네 개 선정하였다. 전국인구표집에 의한 양적 연구로서의 생활시간연구, 그리고 전통회화분석에 의한 생활시간과 영역 연구, Narrative 분석에 의한 소비생활이야기, 그리고 심층면접에 의한 전업주부의 정체성연구가 포함되었다.

▶ 먼저 통계자료를 통해 생활시간과 관련된 거시적 실증적 분석을 한 연구들이 있다(2005,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보고서등). 앞서 Claude Javeau와 박재환의 분류에서 일상생활에 접근하는 방법 중 사람들이 제 2범주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있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종속변수의 양적 증감에 대한 논의와 그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생활시간 -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수입노동시간 등에 대한 연구, 표집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인구전반에 걸쳐 가정의 일상생활 추세 파악에 유리하다. 그러나 의미의 포착은 배제된다. 다만 시간사용과 만족도의 관계로 생활당사자의 관점이 흡수된다. 그러나 간혹 보이는 무선택 random sampling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임의적인 표집에 의한 시간연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 회화 속에서 생활시간 즉, 경제활동 가사노동 여가 등 생활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생활의 영역과 장소를 규명한 김성희(2004)의 연구를 보자. 이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여가로 이루어진 일상의 관점 취한다. 이 연구는 르페브르의 욕구 노동 놀이라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일상생활을 분류한 것을 기초로 삼고 있다. 연구결과, 가내뿐 아니라 가외에서 경제활동 가사노동 그리고 여가를 보낸 것을 입증하고 있다. 기존의 여성주의관점의 다소 이데올로기적인 접근(혹은 통념)으로 얻은 결과를 반박하고 있

8) 연구자는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자학 분야에 속해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일상생활접근사례를 골라 소개한다. 가족은 인적 자원과 물질 자원을 다양한 효용의 출처-가정생산효용, 시장생산효용, 여가오락효용, 외부효용, 비자원배분 효용-에 할당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일련의 행위-요구와 자원을 적합화한다는 의미의 관리행위와 재화와 용역의 획득 구매 사용 처분 등의 과정을 보는 소비행위-에 초점을 두는 연구야말로 일상적 가정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 “내외법에 따라 활동범위가 가내에 국한되었다”는 식의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이 가사노동으로 제한되었다고 하는 통념을 반박하는 현실검증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 연구의 함의는 일상생활연구는 소위 규범을 일상생활로 확대해석하는(통념적인)것의 한계 혹은 오류를 피하게 한다는 점이다.

▶ Narrative를 통해 일상성의 맥락에서 소비생활의 경험을 분석한 김기옥(1999)의 연구는 방법론적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지식에 인간생활의 관습에서 파생되는 관습적 지식이 과학적 지식 못지않게 포함됨을 먼저 지적한다. “관습적 지식은 설화(Narrative)의 형태이며 과학의 기준에서 보면, 우화이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과 미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실증주의 사고와 연구방법은 과학의 수행성만을 과시하고 당사자들은 연구자의 틀 안에 위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행동에 대한 이해 역시 경제학 경영학 기타 사회과학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그러나 종합적 소비자행동이야말로 각 요소들의 집합체로서의 인간에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연구자는 11명의 소비생활 이야기 속에서 plot을 추출하고,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관습적으로 형성되는 욕구를 경험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개개인이 과거에 실제로 겪은 경험이 그에 대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의미부여와 해석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하였다. 실증주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서 연구 자료에 담긴 내용을 통계분석으로 일반화하고 추상화하여 무미건조한 결과를 담는 것과 달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체험적인 결과물을 제공하므로 소비자학의 실천적 목표달성을 위해 물질결정주의가 아닌 정신결정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여 체험적 결과물을 구축할 것도 주장하였다(김기옥, 1999, 80).

▶ 심층면접을 통해 전업주부들의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김선미(2004)의 논문은 전업주부 11명(대조 집단으로 취업주부 3명 포함)에 대한 심층면접 통해 전업주부들의 일상생활 경험의 주제(theme)는 무엇이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있다. 이 연구 속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힘겨운 아이 키우기, 실립살이: ‘잘 못하는’ 그리고 ‘표도 안나는’, 남편과의 관계: ‘우리는 평행선’, 시댁과 친정: ‘샌드위치가 된 기분’이라는 네 가지 일상생활 경험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 건강관리와 외모관리에 대한 몰두, 전업주부직에 대한 정당화, 취업에 대한 희망과 시도, 가정밖 모임 참여가 모두 전업주부가 총체적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이 불완전함을 읽어내고, 보다 완전한 대안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제 인접학문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의 제고 그리고 연구방법의 다양한 적용을 통해 동일한 연구주제를 다양한 학문이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사노동문제도 가정학뿐 아니라 여성학(예; 조주은의 [현대가족 이야기]) 인류학(예; 윤택림의 “생활속의 일상성의 의미”) 사회학(예; 알리 러셀 흑실드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야기])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리고 시점에 따라 연구대상의 다양성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 일상생활연구의 전제는 바로 연구패러다임에 있어서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며 연구자가 보는 만큼 그 부분적 진리(partial truth)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면에서는 일상생활이라는 연구대상이 타학문으로부터 위협받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의 개연성은 훨씬 넓어졌으며 특정 연구주제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 사이의 경쟁보다는 협업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IV. 일상성연구의 가정학적 함의 : 시각의 전환과 질적 방법의 적용

이제 결론에 왔다. 일상생활접근으로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것의 이점은 인간 과정 역사 총체성이 포함된 잘 설명하는 연구(실태를 가장 잘 설명할 즉 일상성 속에서 파악된 실태)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보다 정책 대안제시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점이다. 일상성연구에 몰두하고 더 많은 연구 성과물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의 시각을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 방법론적 교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시각의 전환에 대해 말한다면, ‘인간의 삶’ 이해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연구주제의 발견, 일상성의 관점-사람 과정 의미 맥락 총체성 - 에서 연구해야 할 주제의 선정, 적절한 연구방법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의 정체성을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가정학내에서 가정생활전반에 걸쳐 축적된 지식들은 이러한 전체성의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적용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 다양한 가족생활주기 다양한 계층의 교점에서 다양한 가족의 일상성 규명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생산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위하여 가정생활에 내포된 인적 물적 요소를 포괄하기 위해 의·식·주·가족·자원관리와 소비 등의 전 영역에 걸쳐 분과학문에서 축적한 지식의 통합적 적용이 필요하다. 각론으로 발전된 학문 영역에서 전체로서 가족의 일상생활 연구에 필요한 부분이 탐구되고 다시 일상생활 연구의 결

과로부터 분과학문에 다시 피드백 되어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삶'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르페브르 식으로 인간의 전체성을 상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들과 제약을 탐구할 것인지 아니면 마페줄리처럼 어떤 전제 없이 생활 당사자의 일상생활을 총체적으로 그려낼 것인지 커다란 두 흐름의 시각이 이와 관련된다.

이제 방법론의 교정에 대해 언급해보자. 그동안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한 양적 연구는 세상의 실체와 법칙이 인간의 인식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으며, 연구자는 가설의 부단한 수립과 검증을 통해 '진리(the truth)'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상생활 일상성의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체적 수준에서 한 시대 사람들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방법의 적용예를 제외한다면, 보다 많은 경우에 질적 연구방법론<sup>9)</sup>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조용환(2002:33)은 질적 연구의 한 갈래인 문화 기술적 연구가 특히 유용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고 있다. 연구하려는 현상 대상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사전 지식이 전혀 / 거의 없을 때,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탐구할 때, 소집단/소규모 사회의 역동에 관해 국지적이지만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사건의 맥락, 흐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고자 할 때, 현상 이면의 가치체계 신념체계 행위규칙 적용전략 파악이 연구의 주목

적일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질적 연구의 방법적 패러다임을 보면, 연구논리가 현상학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상은 한 집단이 물려받은 경험세계의 전통 속에서 부단히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연구자가 발견하는 부분적 진실들은 모여서 진리의 세계를 구성하지만 이 진리역시 가변적이다. 일상생활이아말로 부단히 재구성되는 가변적 실체이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점<sup>10)</sup>을 비교해 볼 때 일상성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먼저, 연구의 맥락에서 질적 방법은 단순화와 한계 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복잡하게 파악하며, 개념을 맥락의 복잡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취급한다. 즉 연구의 맥락을 현상(상)의 맥락에 최대한 일치시키려 하고 그에 따라 눈에 띄는 모든 변수 최대한 포착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모두 '사람'이며, 연구대상은 연구의 객체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 간주된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현상학적 판단정지(epoche)-(현상학의 모토;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라! 아무 선입관도 없이 사물들 자체가 말하게 내버려 두라<sup>11-12)</sup>)가 중요하다.

또한, 일상생활을 질적 방법론에 의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연구자 pool의 형성도 필요하다. 이는 시각과 방법론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며, 논문의 작성과 심사의 과정에서 수준 높은 성과물을 산출하게 할 것이다. 질적 방법에 의한 연구를 양적 연구자가 양적 방법의 논리를 따라 심사한 결과, 지적 사항이 전달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형식과 내용이 '아름한'(strange) 논문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희소한 현 단계<sup>13)</sup>에서 연구자들에 대한 질적 방법론의 심도 있는 교육<sup>14)</sup>도 필요하다.

끝으로 교육에 있어서도 학부의 교과과정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과정의 전 교과과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각의 확산과 방법론의 교육은 의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일상적 가정생활을 미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총체적 접근(wholistic approach)이아말로 우리 가정학의 전통적 이점이다.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지식 함양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접학문인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여성학 이외에도 가정학(혹은 생활과학)내에서의 학제적 접근도 필요하다. 물론 학제적 접근을 위한 교육자료 역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일상의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어야 한다.

## ■ 참고문헌

공재욱, 정근식(2006).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서울: 문

9) 학문의 세계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함께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낼 것이다. 최근 들어 질적 연구방법이 유행하지만, 만능은 아니며 양적 연구방법에 비해 우위를 갖는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다만 우리 학문풍토는 일상생활의 연구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이 양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0) 조용환, 2002,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에서

11) 요한네스힐쉬베르거, 1987, 서양철학사 하권 근세와 현대, 832쪽

12) 한편, Glaser와 Strauss의 '현장이론'(grounded theory)개념(1969, 조용환, 1999:32에서 재인용)은 바로 비주류 주변부 세계의 삶과 문화 이해에 주류 혹은 중심부의 시각과 이론이 부적합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현장바깥 학문세계에서 이론을 가져오는 양적 방법에서의 이론의 기능과 질적 방법에서 자료에 기반을 둔(data-based) 구체적인 것으로서 이론 생산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

13) 2000-2003년까지 가정학 분야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4종을 분석한 결과(박영숙, 최혜선, 윤인경, 이승신, 이주리, 2004) 질적 연구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식품영양학 분야(관찰법, 심층면접) 0%, 의류학분야(면접 유물 연구)5%, 아동학분야 면접연구 10.9% 관찰1.3%, 가족학분야 면접 13%, 관찰조사 1.0%, 가정관리 소비자학 연구 면접연구 8.4%, 주거학 분야 면접연구 13.9%, 가정교육 분야, 면접연구와 관찰연구 각각 0.6%.

14) 2006년 2월 한국가정관리학회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그리고 한국조사연구학회는 공동으로 심층면접법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는데 참가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이는 질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의미하며, 이로부터 연구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연구를 간략하게나마 수행하면서 슈퍼비전을 거칠 수 있는 충분히 심도 있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도 읽을 수 있다.



- 화과학사.
- 김기옥(1999). 소비생활 이야기에 반영된 소비자의 사회 문화적 경험 분석 : Narrative분석의 실험적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7(5), 61-83.
- 김선미(2004).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대응양식을 위한 대응양식: 문화기 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2004). 조선시대 여성의 가내외에서의 일상생활-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7), 33-53.
- 김종길(2002). 거대이론의 이기와 일상성의 재발견 : 현상학적 행위이론의 비판적 재검토,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67-92.
- 공인숙, 노영주, 성미애, 송혜림, 이승미, 이완정, 최연실(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6), 442-466.
- 공제욱, 정근식(2006). 식민지의일상 지배와 균열. 서울 : 문화과학사.
- 박영숙, 최혜선, 윤인경, 이승신, 이주리(2004). 세계화시대와 가정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2), 47-67.
- 박재환(1994).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망. *일상생활의 사회학*,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외저, 박재환·일상생활연구회 편, 서울: 한올아카데미, 21-43.
- 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2004). *현대 한국 사회의 일상문화 코드*, 서울 : 한올 아카데미.
- 아그네스 헬러(1998). 일상생활의 추상적 개념. *일상생활의 사회학*,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외저,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서울 : 한올아카데미 111-116.
- 아리스에 겐(1998). 생활사연구의 시각. *일상생활의 사회학*, M. 마페졸리, H. 르페 브르외저,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서울 : 한올아카데미, 222-243.
- 알리리셀 흑실드저, 백영미역(200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이야기-밥 잘 하는 남자. 돈 잘 버는 여자*. 서울: 아침 이슬.
- 앙리 르페브르 저(1968). 박정자 옮김(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 기파랑.
- 요한네스힐쉬베르거(1987). 서양철학사 하권 근세와 현대. 서울 : 이문출판사.
- 윤택림(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 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79-117.
- 조용환(2002).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주은(2004). *현대가족이야기*, 서울 : 도서출판 퍼스웬.

(2006년 6월 20일 접수, 2006년 7월 24일 채택)